

200-64. 조선공산당 공작위원회 검거의 건

- 1931년 7월 18일 용산경찰서장이 경성지법 검사정을 비롯하여 총독부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관련 각 경찰서장에게 조선공산당 공작위원회 검거에 관한 건을 송부한 문건과, 경기도 경찰부장이 1931년 7월 21일 경성지법 검사정, 총독부 경무국장 및 각도 지사에게 공산당 조선국내 공작위원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을 보고한 문건 합철 수록
 - 동일한 사건을 각기 보고한 것으로, 표현상의 차이점이 약간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용산경찰서장이 보고한 것을 보면 趙德進 등 총 98명에 관한 것으로 검거 신병송치가 45명이며, 그 중 기소의견이 38명, 기소유예 2명, 불기소 5명이며, 신병불송치 3명, 불구속으로 기록만 송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자의 본적 등 인적사항 : 본적, 주소, 소속, 직업, 성명, 연령, 별명
 2. 국내에서의 최근 공산당운동 상황
 3.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의 조직 및 활동
 - 1) 조직 및 국외에서의 활동
 - 2)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의 국내진출
 - 3) 국내에서의 활동
 - ① 中央部の 활동
 - ② 地方部の 활동(경기, 평양, 재령, 광주, 진주, 거제도, 대구, 청진, 나진)
 4. 조선국내 공작위원회의 설치
 - 1) 국제공산당 極東部와의 연락
 - 2)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5. 조선좌익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조직
 6. 메이데이 공동투쟁위원회의 활동
 7. 자금의 조달 및 후원회의 설치
 8. 통신연락의 방법
 9. 부록
 - 1)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 규약
 - 2) 조선국내 공작위원회 결의문
 - ①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의 관계
 - ② 조선과쟁문제
 - ③ 조선국내 공작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3) 국제적색노동조합에서 작성한 조선노동조합에 대한 결의문
 - 4) 메이데이에 관하여 府內 각 대공장에 살포할 격문
- 한편, 경기도 경찰부장이 보고한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총 115명으로 용산서의 것보다 17명이 증가되어 있으며, 신병송치 기소의견이 45명, 불구속 기소의견 3명, 기소유예 의견 12명, 기소중지 의견 45명, 근간 송치예정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사건 관계자의 성명(본적, 주소, 소속, 직업, 성명, 연령, 별명)
 2. 범죄사실
 - 1) 국제공산당 정치서기국에서 소위 조선문제결정서를 발표한 후 서울파, 상해파의 책동

2) 洪達洙·趙德進·金一洙 등의 入鮮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간부의 경신

3) 재건준비위원회 본부의 활동과 해산의 경위

4) 지방에서의 활동상황

① 경성과 남선지방과의 연락

② 평양지방

③ 재령지방

④ 광주지방

⑤ 진주지방

⑥ 거제도지방

⑦ 청진지방

⑧ 기타

3. 참고사항

1) 프로핀테른이 鮮內勞動組合 앞으로 보낸 결의문 요지(姜文秀 陳述)

2) 중국공산당 조선국내 공작위원회의 결의문(姜文秀 陳述)

3)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규약

-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1925년 말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해인 1926년 7월 제2차 검거 후 엄중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부활을 계획하고 있어, 이미 수십 회에 걸친 검거를 하였음에도 조직방법, 운동방침이 잠행적으로 실천되고, 교묘한 동향을 띠면서, 과문을 확산하여 新幹會, 조선청년총동맹 등을 해체, 침투하고 실천적인 勞農純無産階級만으로 결합한 투쟁단체를 결성하려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동향에 영향을 받아 각지에서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 바, 이 문헌과 같은 공작위원회사건이 발생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배후 연루자는 서울과 李東輝·金圭烈, ML과 梁明·韓斌를 비롯하여, 화요회파 吳成崙·馬天穆·曹奉岩·洪南杓 등이 국외활동자로 거명되고, 이 밖에도 金英萬·金鏗洙·尹慈英·安相勳·金島山·金泳植·金一洙 등이 등장하고 있어, 당시의 공산주의 운동자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총 294쪽으로 당시의 자세한 활동상황이 기록되어 있다.